기획예산처	보도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 포 시 배포 2026. 11. 2.(월) 10:00

기획예산처,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미래전략 전문가와 심층 논의

- 청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심층면접(FGI) 결과를 공유하고, 2045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골자를 심도 있게 논의

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.2.(월)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에서 **미래 대응 관련 전문가**와 함께 **「미래전략자문회의」를 개최**하였다.

< '미래전략자문회의' 개요 >

○ **(일시/장소)** '26.11.2.(월) 07:40~09:00 /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회의실

○ **(참석자) (기획처) 장관**(주재), 담당 실·국장 등
(전문가)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, **김호기** 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 연구위원회 위원장, **구인회** 서울대 교수, **이철희** 서울대 교수, **최재영** 삼일회계법인 경영연구원장, **유민영** 플랫폼 9와4분의3 대표, **김미루** KDI 박사 등

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전략 관련 1차 설문조사(일반국민, 청년층 대상, 7.29일 결과 기발표)에 이어 **청년층의 생생한 현실적 목소리를 청취**하기 위해 진행된 **심층면접**(FGI) **결과를 공유**하고, 현재 수립 중인 **2045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골자**에 대한 각 분야 **전문가의 의견을 청취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[청년층 심층면접 조사(FGI) 주요 결과]

* 조사 참여자 세부 발언 내용을 별첨하였으며, 기획처의 공식 의견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.

❶ 다음세대 인식 및 진단 : 전반적 불안 요인

참여자들은 **과거에 비하여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점**을 들며, 이러한 구조적 불확실성을 현재의 주요한 불안 요인으로 제기하였다.

특히, **대학생 그룹은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대한 어려움**을, **직장인 그룹은** 주거 마련, 결혼·출산 등 **장기적인 삶을 계획하기 어려운 점**을 언급하였다.

❷ 다음세대 인식 및 진단 : 분야별 인식

미래전략 관련 1차 설문조사에서 **청년층이 관심을 보인 주요 이슈**에 대해 **세부적인 의견을 수집**하였으며, 아래와 같은 응답이 이어졌다.

- **(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) 경력자를 선호하는 채용 관행**과 입사 전 **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어 첫 구직조차 어려운 현실**이 지적되었다.
- **(AI 발전의 영향)** 참여자들은 대체로 **AI 확산이 일자리 규모를 줄일 것**으로 우려했으며,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**대학생 그룹은 적극적인 인재 양성과 R&D 투자**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, **직장인 그룹은 기술 활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**에 관심을 보였다.
- **(지방의 현실)** 인터뷰 그룹의 대다수가 지방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**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적**이고, **의료·문화·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**한 점을 언급하였다.
- **(인구구조 변화)** 응답자들은 비단 **출산·양육 여건 개선** 뿐만 아니라 **인구 감소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**하다고 하였고, 고령화로 예상되는 **의료·요양 수요 증가**와 **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**를 표명하였다.
- **(정책 참여 경험)** 다수의 참여자는 **정책 참여 경험이 없다**(24명중 23명)고 응답하였으며, 이러한 참여가 **실제 정책으로 반영될지에 대한 의문**을 표하였다.

❸ 청년이 희망하는 2045년의 모습

참여자들은 경제성장·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**기본적인 삶의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가치**로 꼽으며, 미래에는 **과도한 경쟁과 비교**, 세대·성별·지역 간 **갈등이 완화**되고, 누구나 **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**하며 외롭지 않게 **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**를 희망하였다.

또한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**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**가 되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.

❹ 미래상에 대한 전문가 제언

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가의 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**정부가 청년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**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
특히 중장기적 국가 전략이 지향할 모습으로 ❶청년과 국민이 **자신의 삶을 안전하다고 느끼고, 주도적으로 설계**할 수 있는 사회 ❷출신 배경·지역·자산 등 **출발 조건의 영향**은 줄이고, **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** 사회 ❸**청년이**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**미래 설계의 주체로 인정**받고 **정책 참여가 활발**한 사회를 그릴 것을 제언하였다.

[2045 국가발전전략 주요 골자 논의]

또한,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의견 수렴, 전문가 연구 등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가 마련 중인 **2045 국가발전전략 주요 골자**에 대하여 **학계, 언론 분야 민간전문가**의 **심도있는 의견을 청취**하였다.

참석자들은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**양극화 심화** 등 **압축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을 완화**하고, **인구구조 변화, 지방 소멸, 기후 변화** 등 현재 **마주하고 있는 도전 요인에도 체계적으로 대비**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. 또한 **AI 대전환, 국제질서 재편** 등은 **우리에게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**하다고 언급하였다.

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"그간 **국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**하였으며, 특히 **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를 지원**하기 위한 **과제를 적극 발굴**하고 있다"고 밝혔다. 또한 "현재 대한민국은 미래를 좌우할 **문명사적 대전환의 기로**에 있다"고 하면서, **새로운 백년을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전략을 충실하게 마련**해 나가겠다"고 하였다.

기획예산처는 오늘의 논의 결과를 비롯해 **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전단계에 걸쳐 다양한 국민의 참여**를 유도하는, **국민이 공감하고 체감**하는 **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**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국민소통단	책임자	국 장	이성원 (044-214-1603)
		담당자	사무관	김채윤 (cy901@korea.kr)
	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	책임자	과 장	박철건 (044-214-1610)
		담당자	서기관	박승환 (niceguystar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별 첨 **청년층 FGI · 전문가 설문조사 주요 결과**

1 조사 개요

□ **(조사 내용)** ①**지금의 삶** 및 **미래 일상**에 대한 인식 ②**분야별 인식** (기술·일자리·지역·복지·인구구조 변화·정책 참여) ③**희망하는 2045년** 미래상

□ **(조사 대상) 대학생**(만19~26세) 및 **직장인**(만30~34세) **24명**, **전문가 10명**

※ FGI는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한 정성 조사로, 취업 여부·성별·거주지 등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집단 전체의 의견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분석할 필요

2 청년층 FGI 주요 결과

1 지금의 삶과 미래 일상 모습에 대한 인식

❶ **(가장 큰 불안요인) 대학생** 그룹은 **취업**을, **직장인 그룹**은 **내 집 마련과 결혼을 걱정**한다고 응답하며 청년 내에서도 그룹별 인식에 차이

(대학생) "노동시장 진입이 곤란"

* "기업들은 경력직과 경험을 해본 사람만 원하고 있어서, 뭔가 시도조차 못 하는…(22세 대학생 남)
* "취업을 한다 해도 기업들이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력, 스펙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디서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해야될지도 문제…"(20세 대학생 남)

(직장인) "미래 설계가 곤란"

* "이런 식으로 벌어서 나중에 집 사고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게 가능할까."(30세 직장인 남)
* "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는데 (…) 나이는 먹어가는데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를 낳고 애를 또 낳을 수 있을지."(32세 직장인 여)

❷ **(20년 뒤 일상의 모습)** 기술발전, 거주 외국인 증가, 기후 변화 등 미래 사회 변화는 그리면서도, **실제 자기 삶의 변화는 그리지 못하는 경향**

미래 사회 모습 예측

* "재택근무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했고, AI라든지 로봇이 많이 일상화될 거라고 생각. 로봇이 깨워주고 아침밥을 차려주면서 오늘은 업무 브리핑을 해주고…"(32세 직장인 여)
* "지금 지방 도시에는 거의 노인, 외국인 밖에 없어요.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젊은 사람이 없거든요. 지방은 거의 외국인이 차지하지 않을까."(30세 직장인 남)

미래 자신의 삶 예측

* "상상이 전혀 안 돼요."(대학생·직장인 그룹) / "20년 후에도 일상은 똑같을 것 같아요"(34세 직장인)
* "저는 그냥 사무직이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똑같이 출퇴근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그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."(34세 직장인 여)

2 분야별 인식

❶ **(노동시장 진입)** 대학생들은 **입사 전 경력을 요구하는 채용 관행**과 **일자리 첫 진입 기회를 얻기 어려운 현실**을 애로사항으로 제기

* “사회 초년생들은 어떻게든 스펙을 쌓거나 열려 있는 기회가 있어야되는데, 기업들은 경력직과 경험을 해본 사람만 원하고 있어서 시도조차 못 하는...”(22세 대학생 남)
* “대학교나 공공 측면에서 현장실습이나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 (…) 실제 실무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”(23세 대학생 여)

❷ **(AI 기술발전)** 대체적으로 **AI 확산**이 **일자리 규모를 줄일 것**으로 전망

AI 확산 후 일자리 변화

* “AI가 등장하기 전의 채용된 사람의 수와 AI를 관리하기 위해서 채용될 사람의 수를 비교하면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...”(19세 대학생 여)
* “기업에서 오히려 AI를 잘 쓰는 사람을 더 요구하고, 그런 사람들로 기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대체되지 않을까 싶어요.”(21세 대학생 여)

■ 이에 필요한 대비책으로 대학생은 **적극적 인재 양성**과 **선제적 기술 경험의 필요성**을, 직장인은 **기술 활용 능력 격차 해소를 주로** 언급

(대학생) 인재 양성 및 기술 경험에 관심

* “인재 양성과 R&D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(…) 인재를 꾸준히 배출해 줘야 기술 발전이 이어질 테니까 나라에서 더 지원이 있으면...”(20세 대학생 남)
* “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고,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으면...”(20세 대학생 남)
* “AI 같은 신기술을 접하는 편차가 나이대별로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인문계다 보니까 이공계에 비해서는 적게 접하는 것도 사실이고...”(21세 대학생 여)

(직장인) 고용불안 및 기술 활용 능력 격차에 관심

* “앞으로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남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? 제 가치는 어떻게 증명이 될까? AI에 대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? 이런 것들이 좀 고민입니다.”(33세 직장인 남)
* “배우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 걸음마 수준... 다들 GPT다, 제미나이다 하지만 실제 활용은 묻고 대답하는 정도가 대부분 (…) 어렸을 때부터 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.”(34세 직장인 남)

❸ **(지방 균형발전)** 인터뷰 그룹 대다수가 **지역의 일자리** 및 의료·문화·교통 등 **생활 인프라 부족**을 **지방을 떠나는 주요 원인**으로 인식

* "지방은 청년들이 안 살고 싶고 기피한다기보다는 살고 싶어도 못 산다고 생각 (…)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으면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구조…"(20세 대학생 여)
* "지방은 수도권만큼의 문화적인 인프라를 못 갖추고 있다고 생각 (…) 서울로 진학한 친구들과 지방에 사는 저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, 친구들은 여러 사람을 만나고 누리면서 할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같은 삶 속에서 계속 돌고 있는 느낌"(21세 대학생 여)
* "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게 지방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 (…) 지역에 있는 큰 병원을 갔는데도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거나 힘든 점을 겪어서…"(19세 대학생 여)

❹ **(인구 변화)** 많은 참여자가 **인구구조 변화 전반**에 대한 **대응 필요성 제기**

■ **출산·양육 여건 개선 필요성**을 비롯해, **고령화로 인한 의료·요양 수요 증가**와 **복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**를 제기

출산과 양육 여건

* "제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적 문제거든요. (…)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이나 이런 식으로 다 자라날 때까지 쭉 이어져야…"(21세 대학생 여)
* "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아서 낳지 않는 경우가 많다 (…)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변화된다면 출생률은 알아서 따라올 거라고 생각…"(34세 직장인 여)
* "지금 근로 시간이 길고 아이를 데려오고 픽업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어려워서 주변에 시댁이나 친정이 없으면 아이 둘 낳는 상상을 못하더라고요."(34세 직장인 여)

고령화와 복지

* "요양보호사도 은퇴할 시기에 자격증을 따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상황 (…) 질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해요."(30세 직장인 남)
* "문제는 국민연금인 것 같습니다. (…)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거의 기부를 하는 수준(…) 나쁘게 말하자면 지금 구조 자체가 사기에 가까워 보이고…"(33세 직장인 남)

❺ **(정책 참여)**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한 **경험이 매우 적으며**, 정책적 의견을 내도 **실제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**이 다수

* "허탈감 느꼈던 거는 관심 있는 척을 많이 한다는 생각. 실제로 진지하게 고민해서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도 (…) 청년이 있는 자리에서 사진 찍고 홍보하는데 그치는 게 아닌가…"(33세 직장인 남)
* "실제 제안이 이루어졌다는 예시 같은 걸 더 보여주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."(32세 직장인 남)

3 희망하는 2045년

○ 참여자들은 기술 발전·경제성장보다는 안정된 삶의 보장과 함께 여유, 인간관계, 양극화 개선 등 **삶의 질에 관련된 요소를 중시**한다고 언급

희망하는 미래상

* “큰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어요. (…) 아주 여유 있는 대한민국. 가정과 취미에 많이 집중하고 거기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있는...”(20세 대학생 남)
* “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(…) 주거, 의료, 교육, 일자리 쪽으로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제도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”(34세 직장인 여)
* “너무 양극화되지는 않은 그런 사회가 됐으면 (…) 임금 격차만 해도 지금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, 학군의 격차도...”(34세 직장인 남)
* “외롭지 않은 대한민국 (…) 지금도 1인 가구가 많은데 미래에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노인분들 중에서도 혼자 사는 분들도 많아질 텐데...”(31세 직장인 여)

정부에 전하고 싶은 말

* “지역, 세대, 성별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나 발언들은 좀 없었으면...”(33세 직장인 남)
* “정책이 나올 때 좀 장기적이었으면 (…) 5년 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(…) 이전 정부에서 하던 것을 정부가 바뀌면 전부 폐기하고 이런 게 많았으니까.”(24세 대학생 남)
* “청년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(…)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고 있다, 이걸 계속 보여주기만 하면 될 것 (…) 청년들을 계속 정책에 참여시켜서 우리가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계속 확인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.”(21세 대학생 여)

3 전문가 인터뷰* 주요 결과

* 청년층 FGI의 주요 결과를 고려해 응답

1 청년층 조사 주요 응답에 대한 평가 및 제언

❶ **(불안요인)** 미래에 대한 **예측의 어려움**, **양질의 일자리 부족**을 비롯해 청년내 **계층간 불평등 심화**를 청년층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제기

■ 특히, 청년층을 **하나의 세대로 묶기보다** 학력, 자산 수준, 거주지역 등 **격차에도 주목**하고 **집단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**하다고 제언

* “청년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불확실성 (…) 자신의 선택과 노력이 어떤 미래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확실성이다.”(이** 교수)
* “현 시대 청년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산업구조 전환 속에서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자산에 접근할 기회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점”(이** 교수)
* “대학에 가지 않은 4분의 1은 더 불리하다 (…) 그 일자리가 먼저 줄었다. 이 집단은 대체로 정책적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.”(장** 선임연구위원)
* “부모의 자산과 학력, 본인의 학력과 고용형태, 성별과 지역이 맞물려 삶의 출발선과 실패를 감당할 여력이 갈립니다.”(한** 연구소장)

❷ **(국가에 대한 신뢰) 제도가 나의 삶을 보호**하고 **실패에도 재기**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**정부 신뢰가 제도 개혁의 성공 조건**이라는 인식

* “청년이 국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일을 잃거나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삶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충분히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”(한** 연구소장)
* “국가가 자신의 미래를 충분히 보호하거나 예측가능한 삶의 기반을 제공한다고 느끼지 못하면 국가와 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.”(이** 교수)
* “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하면 장기적인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어려워...”(이** 교수)

❸ **(노동시장)** 전반적인 **노동 환경**, **구조 개선**과 더불어 **일자리 형태와 무관히 개개인이 보호받는 환경 조성**이 중요하다고 평가

* “현재 저평가된 일자리이지만, 특히 필수 노동에 해당하는 돌봄, 중소기업, 농산촌 일자리 등을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 필요”(권** 교수)
* “청년들이 말하는 일자리는 대체로 대기업 (…) 문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이다. 성과 배분 구조를 손대지 않으면 어떤 진입 지원도 청년을 그 자리로 보내지 못한다.”(장** 선임연구위원)
* “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, 한 직장에 오래 소속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일정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”(이** 연구원)

■ 특히, AI 전환 등 **사회 변화가 초래할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,** 누구나 **이직·재출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**하여야 된다고 언급

* “한 번의 노동시장 진입 결과가 개인의 생애 전체를 결정하지 않고, 자신의 능력과 숙련을 바탕으로 이동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어야”(이** 교수)
* “기업 내부 교육에만 맡기면 좋은 기업에 들어간 사람일수록 더 많은 교육을 받고, 불안정 노동자일수록 기술 전환에서 뒤처지는 역설 (…) 개인 단위 학습권, 재교육 기간 소득 보장, 교육기관과 기업 간 연계 등 사회적 권리화 필요”(황** 연구원장)
* “기업의 지원에는 주니어 채용 및 양성 계획과 재교육, 직무 전환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.”(한** 연구소장)

❹ **(인구 변화) 인구감소 사회**에 대비한 **현실적인 적응 대책**이 필요하며, 미래의 **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보호**도 필요하다고 제언

* “앞으로의 인구정책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인구 감소에 적응하는 방향에 더 무게를 둘 필요 (…)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주거·일자리·돌봄 부담 같은 구조적 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”(이** 연구원)
* “교육·노동시장·연금·복지·의료·돌봄·지역 인프라 등을 변화할 인구 구조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은 불가피, 또한 중요한 것은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고용불안, 주거비, 돌봄 부담이나 경력단절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””(이** 교수)
* “1인가구, 한부모가구, 비혼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과 돌봄 관계에서도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.”(이** 교수)

2 2045년 전략이 추구해야 될 미래상에 대한 제언

❶ 개인이 **자신의 삶을 안전하다고 느끼고, 주도적으로 설계**할 수 있는 사회

* 희망은 미래가 좋아진다는 전망이 아니라 자기 삶이 안전하다는 느낌에서 온다고 본다“ (장** 선임연구위원)
* “청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미래가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, 어떤 변화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회가 있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”(이** 연구원)
* “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. 어떤 일을 배우고 어디에서 살지, 일자리를 잃었을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,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을지에 대해 최소한의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.”(한** 연구소장)

❷ 출신 배경·자산·학력 등 **출발 조건의 영향은 줄이고**, 누구나 **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**되는 사회

* “실패의 자유와 재도전의 권리가 있고, 출신지역·부모의 직업·재산이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, 그리고 노력과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 설계가 가능한 사회”(황** 연구원장)
* “부모의 자산이나 대학의 이름이 삶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. 첫 직장에서 실패하거나 늦게 진로를 바꾸더라도 다시 배울 수 있어야 하고...”(한** 연구소장)

❸ 청년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**미래 설계의 주체로 인정**받고, **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권한**을 가져 **참여가 활발한** 사회

* “2045년을 대비한 정책은 현재의 기성세대가 일방적으로 설계하기보다, 그 시대를 실제로 살아갈 청년 세대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(…) 미래 당사자에게 미래 설계의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는 사회여야...”(이** 교수)
* “2045년 정책의 목표는 청년의 미래를 대신 설계해 주기보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조건과 힘을 돌려주는 것”(황** 연구원장)
* “청년이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예산과 사업 설계, 정책 평가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며, 그러한 제안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갈 필요”(이** 교수)